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 현 숙\* · 배 영 주\*\* · 정 선 영\*\*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정체감,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이 확립되는 시기로, 진리탐구 및 교양교육과 아울러 보다 좋은 직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기간이다(Kim, 2000). 현재의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과 연구의 기능 외에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에 봉사하기를 기대 받고 있으며 대학의 직업을 위한 준비가 중요시되고 있다. 결국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추구 뿐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진로의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된다(Hwang, 1998).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의 생활로 변화되는 사회적 전환기일 뿐 아니라 자아인식, 주체성 확립, 이성교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설정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므로 환자 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적

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고 있다(Carter, 1982). Cho와 Jeong(2000)은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학과간의 차이를 밝힌 바 있는데, 간호과는 비간호과에 비하여 교육과정의 더욱 엄격하며,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과 주기적으로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 등이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동안 취업에 용이하다고 여겨지던 간호학과도 더 이상 취업문제에서 예외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료시장 또한 변화되며, 이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간호대학생에게 학업이나 진로·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호학생의 적응을 조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스트레스 관련 이론에서 Lazarus와 Launier(1978)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과 환경 그 자체를 바꾸거나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고 삶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응이란 환경적 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생

구와 개인 내적 요구, 그리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개인의 대응 능력을 초과하거나 부담이 될 때 이를 해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Cohen & Lazarus, 1979).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관련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Rosenberg, 1979), 과제수행 및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개인이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한 자신과 세계를 정확히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Kelly, 1962).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Bandura(1997)는 이러한 신념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자신이 해야 하는 과제를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Bandura, 1977). Park, J. W.(200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최근까지 연구되어온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주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해 다루어 졌다. 그러나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많은 학업량과 취업에 따른 학업·취업 스트레스를 포함하지만 이를 포괄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장차 전문적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또한 이들 변인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학업·취업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분석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분석한다.
- 5)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Rosenberg, 1979),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Kim(1994)이 수정 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3) 대응방법

대응방법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된 개인과 환경간의 요구해결과 그로 인해 발생된 감정을 조절하려는 과정으로 (Lazarus & Folkman, 1984), 본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1984)가 개발하고 Kim(1987)이 요인 분석하여 개발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4) 학업·취업 스트레스

학업·취업 스트레스란 학업과 졸업 후의 취업 관련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할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 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이며(Hwang, 1998), 본 연구에서는 Lee 등(1997)이 제작한 측정도구를 Rhyu 등(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가 2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에 한하므로, 연구결과와 적용과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6점 척도로써 20개의 긍정 문항과 11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 문항은 그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관계 조사 연구(Correlation survey research)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의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 3, 4학년 학생이며, 자료 조사기간은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수집된 221명의 자료가 총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 도구

연구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9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자기효능감 31문항, 대응방법 62문항, 학업·취업 스트레스 18문항으로 총 130문항이었다.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도구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Jeon(197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써 5개의 긍정 문항과 5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정 문항은 그 점수를 역으로 계산하여,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Kim(1994)이 수정 작성한 일반적 자기효

3) 대응방법

본 연구의 대응방법 측정도구는 Lazarus와 Folkman(1985)이 개발하고 Kim(1987)이 수정 보완하여 6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응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도구는 문제 중심적 대응,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 중심적 대응, 소망적 사고의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Kim(198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87, .94,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응방법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하위척도는 .93, .95, .85, .88이었다.

4) 학업·취업 스트레스

본 연구의 학업·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Lee 등(1997)이 제작한 측정도구를 Rhyu 등(1998)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연구자가 간호학과 실정에 맞게 18문항으로 수정하여, 간호학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구하였고,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뜻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학업·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였고, 어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학업·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로 산출하였다.
-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학업·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로 산출하였다.
- 6)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2학년이 38.9%, 3학년이 32.1%, 4학년이 29.0%이었고, 종교는 무교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가 22.6%, 개신교가 20.4%, 불교가 19.9%, 기타가 0.5%이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취업 진로는 병원이 80.5%로 가장 높았고, 보건소가 7.2%, 기업이나 산업체의 보건실이 5.9%, 기타가 4.5%, 진학이 1.4%, 의무실이 0.5%이었다. 전 학기 성적은 3.5이상에서 4.0미만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3.0이상에서 3.5미만이 32.6%, 4.0이상인 12.7%, 2.5이상에서 2.9미만이 7.7%, 2.5미만이 0.9%로 나타났다. 형제 중 첫째가 40.7%이었고, 막내 30.3%, 중간 24.9%, 외동 4.1%이었다. 가정 형편은 '그저 그렇다'가 57%로 가장 높았고, '어느 정도 어렵다'가 24.9%, '여유롭다'가 16.7%, '대단히 어렵다'가 1.4%이었고, 자신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상, 중, 하로 나누어 볼 때, 중이 81.0%, 상이 14.5%, 하가 4.5%이었다. 대학생할 만족감은 '만족한다'가 57.9%로 가장 높았고, '불만족 한다'가 35.7%, '매우 불만족한다'가 5.0%, '매우 만족한다'가 1.4%이었다. 취업동기는 경제력 확보가 66.5%로 가장 높았고, 자아실현이 28.5%, 적성과 흥미가 3.2%, 기타 1.4%, 사회봉사가 0.5%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이 3.03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78점이었다.

대상자의 대응정도는 평균평점 2.45점이었고, 하부요인을 평균평점으로 비교해 볼 때, 소망적 사고가 2.63점

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지지 추구 2.52점, 문제 중심적 대응 2.50점, 정서 중심적 대응 2.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평균평점 2.64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Sophomore	86	38.9
	Junior	71	32.1
	Senior	64	29.0
Religion	Protestant	45	20.4
	Catholic	55	22.6
	Buddhist	44	19.9
	None	81	36.7
	Others	1	0.5
Hope for the employment field	Hospital	178	80.5
	Course entrance	3	1.4
	Dispensary	1	0.5
	Nursing room of the school	13	5.9
	Public health center	16	7.2
Others	10	4.5	
Marks of last term	4.0 ≤	28	12.7
	3.5 ≤ - <4.0	102	46.2
	3.0 ≤ - <3.5	72	32.6
	2.5 ≤ - <3.0	17	7.7
	<2.5	2	0.9
Birth order	First	90	40.7
	Middle	55	24.9
	Last	67	30.3
	Only	9	4.1
Economic status	Very difficult	3	1.4
	Difficult	55	24.9
	Moderate	126	57.0
	Affluent	37	16.7
Ability of relationship	High	32	14.5
	Middle	179	81.0
	Low	10	4.5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dissatisfied	11	5.0
	Dissatisfied	79	35.7
	Moderate	128	57.9
	Very satisfied	3	1.4
Motivation of job-seeking	Confirm economic power	147	66.5
	Social service	1	0.5
	Self-actualization	63	28.5
	Interest and aptitude	7	3.2
	Others	3	1.4

<Table 2> Description of study variables  
(N=221)

Variables	Mean score(SD)	Max.	Min.
Self-esteem	3.03( .43)	40	15
Self-efficacy	3.78( .53)	153	78
Coping methods	2.45( .28)	194	101
Problem-focus	2.50( .35)	76	33
Social support	2.52( .53)	23	6
Emotion-focus	2.33( .33)	77	34
Aesthetic thinking	2.63( .39)	38	16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2.64( .62)	79	23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종교( $F=2.55, p=.040$ ), 전 학기 성적( $F=4.88, p=.001$ ), 가정 형편( $F=4.65, p=.004$ ), 대인관계 유능성( $F=10.75, p=.000$ ), 대학 생활 만족감( $F=7.62, p=.000$ ), 취업동기( $F=3.36, p=.01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기타인 군이 가톨릭인 군보다, 전 학기 성적이 3.0이상에서 3.5미만인 군이 2.5미만인 군보다, 가정형편이 '그저 그렇다'는 군이 '어렵다'는 군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상인 군이 하인 군보다, 대학생활 만족감에서 '만족한다'는 군이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취업동기가 사회봉사인 군이 기타인 군보다 유의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학년( $F=5.25, p=0.06$ ), 대인관계 유능성( $F=6.83, p=0.01$ ), 대학생활 만족감( $F=7.38, p=0.00$ ), 취업동기( $F=2.78, p=0.28$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학년이 1학년 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상인 군이 하인 군보다, 대학생활을 '만족한다'는 군이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취업동기가 사회봉사인 군이 기타인 군보다 유의하게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대상자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전 학기 성적( $F=3.46, p=0.09$ ), 가정형편( $F=3.55, p=.016$ ), 대학생활 만족감( $F=8.17, p=.000$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 학기 성적이 2.5미만인 군이 4.0 이상인 군보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군이 '여윌롭다'는 군보다 대학생활을 '만족한다'는 군이 '불만족 한다'는 군보다 유의하게 학업·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대상자의 대응방법은 일반적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학업·취업 스트레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수준은 중앙값으로 나누었으며, 자아존중감 15점, 자기효능감은 45점이었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0.47, p=.638$ ), 하부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10, p=.038$ ). 다른 하부요인인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 중심적 대응 및 소망적 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36, p=.000$ ). 자아존중감이 낮은 군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20, p=.029$ ). 하부요인으로는 문제 중심적 대응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t=6.15, p=.000$ ),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 중심적 대응 및 소망적 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4.38, p=.000$ ). 자기효능감이 낮은 군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높은 군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5.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r=-.30, p=.000$ ). 자아존중감과 대응방법은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고( $r=.18, p=.007$ ), 자아존중감과 대응방법의 하부요인과는 문제 중심적 대응( $r=.35, p=.000$ ), 사회적지지 추구( $r=.16, p=.020$ )가 순상관이 있었고, 정서 중심적 대응, 소망적 사고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r=-.36, p=.000$ ). 자기효능감과 대응방법은 유의한 순상관이었고( $r=.18, p=.006$ ), 하부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응( $r=.47, p=.000$ )만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 중심적 대응 및 소망적 사고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대상자의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대응방법과의 관계에서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정서 중심적 대응( $r=.15,$

〈Table 3〉 Degree of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due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1)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steem			Self efficacy			Coping			Stress		
		Mean score	F(p)	Scheffe	Mean score	F(p)	Scheffe	Mean score	F(p)	Scheffe	Mean score	F(p)	Scheffe
Grade	Sophomore	3.00	.69		3.68	5.25		2.50	2.73		2.60	.71	
	Junior	3.05	(.501)		3.79	(.006)	①<③	2.45	(.068)		2.71	(.491)	
	Senior	3.08			3.92			2.39			2.63		
	Protestant	3.12			3.78			2.42			2.63		
Religion	Catholic	2.91	2.55		3.75	.25		2.44	.58		2.76	1.05	
	Buddhist	3.03	(.040)	②<⑤	3.81	(.910)		2.49	(.675)		2.64	(.382)	
	None	3.07			3.80			2.44			2.57		
	Others	3.40			3.65			2.64			3.11		
	Hospital	3.04			3.81			2.45			2.64		
Hope for the employment field	Course entrance	3.03			3.61			2.38			2.65		
	Dispensary	2.80	.67		3.71	1.31		1.98	.87		1.26	1.35	
	Nursing room of the school	3.12	(.650)		3.73	(.262)		2.46	(.505)		2.58	(.247)	
	Public health center	2.93			3.49			2.40			2.91		
	Others	3.13			3.95			2.53			2.47		
	4.0≤	3.18			3.89			2.48			2.43		
Marks of last term	3.5≤ - <4.0	3.07	4.88		3.82	.54		2.44	.45		2.65	3.46	
	3.0≤ - <3.5	2.97	(.001)	③<⑤	3.73	(.707)		2.46	(.771)		2.71	(.009)	①<③
	2.5≤ - <3.0	3.01			3.70			2.44			2.54		
	<2.5	2.15			3.56			2.39			3.86		
	First	3.05			3.81			1.99			2.66		
Birth order	Middle	3.04	.07		3.83	.78		2.44	1.75		2.72	.66	
	Last	3.03	(.973)		3.74	(.506)		2.46	(.158)		2.60	(.580)	
	Only	2.98			3.66			2.46			2.43		
	Very difficult	2.57			3.91			2.43			2.67		
Economic Status	Difficult	2.87	4.65		3.67	1.92		2.44	1.78		2.76	3.55	②<④
	Moderate	3.09	(.004)	②<③	3.81	(.128)		2.50	(.153)		2.68	(.016)	
	Affluent	3.15			3.86			2.34			2.35		
Ability of relationship	High	3.40	10.75		4.05	6.83		2.45	.78		2.62	1.30	
	Middle	2.99	(.000)	①<②	3.75	(.001)	①<③	2.45	(.459)		2.63	(.274)	
	Low	2.74			3.51			2.42			2.9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dissatisfied	2.71			3.55			2.44			3.23		
	Dissatisfied	2.91	7.62		3.62	7.38		2.40	1.27		2.83	8.17	②<④
	Moderate	3.14	(.000)	②<④	3.89	(.000)		2.48	(.287)		2.50	(.000)	
	Very satisfied	3.47			4.48			2.61			1.85		
Motivation of job-seeking	Confirm economic power	2.99			3.73			2.44			2.73		
	Social service	3.50	3.36		4.61	2.78		2.44	.62		2.56	1.28	
	Self-actualization	3.16	(.011)	②<⑤	3.93	(.028)	②<⑤	2.48	(.647)		2.44	(.278)	
	Interest and aptitude	3.11			3.62			2.46			2.62		
	Others	2.47			3.53			2.47			2.94		

(Table 4)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due to level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N=221)

Variables	Self-esteem		t(p)	Self-efficacy		t(p)
	High	Low		High	Low	
	Mean±SD	Mean±SD		Mean±SD	Mean±SD	
Coping methods	149.55±17.20	147.58±20.20	.47(.638)	151.00±16.69	149.57±18.54	2.20(.029)
Problem-focus	52.39± 7.53	48.63± 6.91	2.10(.038)	53.89± 7.08	45.43± 6.87	6.15(.000)
Social support	15.21± 3.11	14.11± 3.68	1.45(.147)	15.32± 3.03	14.32± 4.01	1.52(.131)
Emotion-focus	55.69± 7.81	57.79± 7.64	1.12(.263)	55.42± 7.79	56.00± 7.17	1.36(.174)
Aesthetic thinking	26.27± 3.87	27.05± 4.66	.83(.407)	26.37± 3.64	26.85± 4.80	.23(.818)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46.62±10.44	57.84±13.42	4.36(.000)	45.59±10.17	57.88±14.03	4.38(.000)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221)

Variables	Self-esteem	Self-efficacy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Self-efficacy	.62(.001)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30(.001)	-.36(.000)	
Coping methods	.18(.007)	.18(.006)	.08(.224)
Problem-focus	.35(.000)	.47(.000)	-.06(.368)
Social support	.16(.020)	.07(.273)	.06(.388)
Emotional-focus	-.03(.622)	-.09(.186)	.15(.028)
Aesthetic thinking	.06(.352)	.03(.699)	.14(.039)

p=.028), 소망적 사고( $t=.14$ ,  $p=.039$ )는 유의한 순 상관관이 있었고, 문제 중심적 대응, 사회적지지 추구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었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순 상관관이 있었다( $r=.62$ ,  $p=.000$ ) (Table 5).

#### IV. 논 의

최근 경제 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대학사회에 까지 파급되어 학생들의 학업 영역과 진로·취업 영역에서의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더구나 학문적 지식 습득과 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간호학생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예외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간호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학업과 취업에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과의 관계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평균 평점은 3.03으로, Lee(1999)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평균평

점이 2.75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평점이 3.78점으로 Choi(2001)의 연구에서 보고한 자기효능감 평균평점 3.31점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학과 학생인 반면 Lee(1999)와 Choi(2001)의 연구 대상자가 간호전문대학생이라는 대상자의 특성 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진 학기 성적이 좋을수록, 대 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진취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전개한다는 Rosenberg(1979)의 의견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평균평점 3.92로, 학년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 경험 등 특수한 환경에의 접촉이 잦아져, 상황을 해결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평균평점이 2.64점 이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hyu와 Kim(1998)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이 2.54점으로 간호대학생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업·취업 스트레스의 도구가 4점 척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2.64점은 중간 이상의 스트레스를 보이므로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3-4년 동안에 학습해야 할 지식의 종류와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여 실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Choi(200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지난 학기 성적, 가정형편,

대학생활 만족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Hwang(1998)의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성적, 가정형편, 대학생활 만족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보고와 일치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난 학기의 성적이 2.5이하인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평균평점이 3.86점이므로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대응방법에서는 소망적 사고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정서 중심적 대응이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wak 등(2000)의 학업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 의학과 학생은 문제 중심적 대응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정서 중심적 대응, 소망적 사고, 사회적지지 추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문제 중심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학생이 의학과 학생에 비해 문제 중심적 대응 보다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학생 집단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46.62인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군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57.8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wak 등(2000)의 연구에서 낮은 스트레스를 보고한 하위 30%집단의 자기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와 Kim 등(2002)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취와 유의한 순상관을 나타냈다는 연구 보고와 일치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성적이 높은 학생, 경제적으로 여유롭

다고 지각하는 학생, 대인관계 유능성에 높은 학생,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 취업동기가 사회 봉사인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므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간호교육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학업·취업 스트레스 정도가 낮았고, 문제 중심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Y. S. 등(2000)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하고(Schunk, 1996), 높은 목표는 높은 수행을 가져온다는 Locke와 Latham(1990)의 의견을 감안해 볼 때, 과중한 학업량과 임상실습, 국가고시 및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간호학생에게 학업·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im 등(200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과 학업성취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년이 높은 학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학생,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 취업동기가 사회 봉사인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므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간호교육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관련요인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취업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Rhyu(1998)의 연구결과와 낮은 스트레스를 보고한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한 Kwak 등(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순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Bae(1998)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순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은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간호교육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 스트레스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D 시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2, 3, 4학년 학생 22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 test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종교, 전 학기 성적, 가정형편,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감, 취업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은 학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감, 취업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전 학기 성적, 가정형편, 대학생활 만족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학업·취업 스트레스, 문제 중심적 대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학업·취업 스트레스, 문제 중심적 대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대응방법, 자아존중감과 문제 중심적 대응,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추구는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자기효능감과 대응방법, 자기효능감과 문제 중심적 대응은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고, 자기효능감과 학업·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역상관이 있었다.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대응방법과의 관계에서는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정서 중심적 대응,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소망적 사고는 유의한 순상관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학업·취업 스트레스가 낮고, 문제 중심적 대응을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한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변인을 포함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
4.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므로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스트레스관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e, Jung. Sook. (1998). *The relationship among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19-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Kyoyook-kwahak-sa Co*.
- Carter, E. W. (1982). Stress in nursing students : Dispelling some of the myth. *Nursing Outlook*, 30(4).
- Cho, M. K & Jeong, H. S. (2000).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Type A/B personality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istration*, 7(2), 183-191.
- Choi, J. S. (2001).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generalization about the effect of self-efficacy. *The Journal of Nursing Science Kusan College of Nursing*, 3, 21-41.
- Cohen, F. & Lazarus, R. S. (1979). Coping with the stress of illness in : Stone, G. C., Cohen, F. & Adler, N. E.(eds). *Health psychology : A Handbook*. San Francisco, Jossey-Bass.

- Hwang, Seong Won.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Dong-A University. Pusan.
- Jeon, B. J. (1972). Review of self-concept theory. *Journal of cultural sciences*. 29(103)
- Kelly, E. C. (1962). *Theory and the flow of thought*. New York : Plenum press.
- Kim, J. H. (1987). *Relations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s to depression : A focus on freshmen's stress experiences*. Docto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Jong. Im. (1994). *An effect of aquatic exercise program with self-help group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efficacy on pain, physiological parameter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having rheumatoid arthrit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im, J. S. (2000). The effect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f the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9(2). 209-219.
- Kim, Y. S., Kim, M. S., Cho, W. S.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academic achievement, decision making.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1). 51-60.
- Kwak, D. I., Choi, Y. K., Lim, H. J., Oh, H. J., Jung, I. K. & Lee, M. S. (2000). A study on the stress, coping and General well-being of medical students. *The Medical Education of Korea*. 12(2). 227-239.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A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 pub.
- Lazarus, R. S. & Launier R.. Stress 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um and M. Lerr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 Psychology*. New York Plenum.
- Lee, H. K.(1999). Effects of the Guided Imagery Therapy on the self-actualiza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 9(1).
- Locke, E. A. & Latham, G. P.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 J.:Prentice-Hall.
- Pack, J. W.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perceived by Nurses and self-efficacy*. A-Ju University. Suwon.
- Park, Y. S., Kim, U. C., Chung, K. S., Lee, S. M., Kwon, H. H., & Yang, K. M.(2000).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satisfaction among primary,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94-118.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hyu, J. H. & Kim, T. S. (1998).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stress and stress coping mode. *Journal of Students Guidance Research*. 16. 211-232
- Schunk, D. H. (1996). Goal and self-evaluative influences during children's cognitive skill learning.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3. 359-382.
-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Abstract -

##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Park, Hyun Sook\* · Bae, Young Joo\*\*  
Jung, Sun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221 nursing students living in D city from 10, September to 30, September in 2002.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mean, S.D., t-test, ANOVA, Scheff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the high self-esteem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w self-esteem group.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the high self-efficacy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w self-efficacy group. The problem-focus coping of the high self-esteem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w self-esteem group. The problem-focus coping of the high self-efficacy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low self-efficacy group.

2.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r=-.30, p=.000$ ).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coping method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 $r=.18, p=.007$ ).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r=-.36, p=.000$ ). The 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oping method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 $r=.18, p=.006$ ).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needed education development considering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o alleviate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Stres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